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5/6월호
2014년

Email: VoiceOfNM@gmail.com

광야에 핀 5월의 야생화 'Snakeweeds on the Black Vocano' by Kyong Hwa Lee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5/6월호 내용

신록의 5월 문턱에서 후딱 가버린
일년을 뒤돌아 보며, 여러분께 2013년
결산보고해드립니다.

작은규모이고 숫자는 적지만, 규모있게
알뜰하고 정겹게 한인회 살림살이 해오는데
수고해 주시고 도와 주신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입

전 이월금	4702.10
선거기금	3300.00
김치축제	4200.00
고유재명님 Trust	570.00
골프 대회	1033.00
멤버쉽	3270.00

총수입 17075.10

지출

회관 물게지	9427.56
물 전기 게스	2230.65
캠캐스트	1100.33
보험	998.56
재료 휴지 비누 기타	1770.26

총지출 15427.40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저는 우리 한인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의 무궁한 발전 건강
행복을 항상기원합니다. 뉴멕시코한인회장 조규자 올림



표지		5월의 사진 / 한인회 13년 결산보고	: 1
VOA		오바마대통령 한국방문, 목련전달	: 2
미국사회소식		장학금 신청하세요	: 3
칼럼		한인회와 교회?	: 4
원예 상식		봄철 정원관리	: 5
세금상식		출퇴근 공제?	: 6
수필		소 이정길	: 7
예배		기도문 권구자	: 8
미술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	: 9
영화 소개		<노아>는 어떤 영화인가?	: 10
수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준우	: 13
뉴멕시코 한인회		한인회가입신청서	: 15
광고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14
광고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안내	: 15
		편집후기	: 17

오바마 대통령, 세월호 위로…성조기·목련 전달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4월 25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로의 뜻으로 성조기와 목련 묘목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25 일 정상회담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한국의 동맹국과 친구로서 미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I am father of 2 daughters of…”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희생당한 학생들과 비슷한 또래의 두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에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를 겪은 한국민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은 징표로, 사고 당일 미국 백악관에 게양됐던 성조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연민을 전한다며 백악관 목련 묘목을 단원고등학교에 전해왔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These magnolia trees represent in our country beauty…”

오바마 대통령은 목련 묘목은 매 봄마다 피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으로 학생들의 생명과 미-한 동맹의 우정을 뜻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고 직후 직접 위로의 뜻을 전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한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 지난 9/11 테러 이후에 미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했듯 한국 국민도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빈방문을 마치고 25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오바마 대통령은 도착 직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전사자 명비에 헌화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경복궁으로 이동해 30분 정도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쟁기념관과 경복궁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복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서울이 대단히 긴 역사를 가졌으며, 특히 조선시대 임금은 오전 5시부터 신하를 접견할 만큼 근면하게 일했다는 설명을 듣고는 미국 대통령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묵념하고 있다.

그렇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 반출됐던 한국 문화재도 반환했습니다. 대한제국과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황제지보를 비롯한 9개의 인장으로, 황제지보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만든 국새로 자주독립 의지를 상징하는 문화재입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입니다.

[녹취: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금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추어 (문화재)인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바로 한미 관계의 긴밀함과 양 국민간 우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한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1시간 30분 가량 업무만찬을 함께 하며 보다 심도 깊게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26일에는 미-한 연합사를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한 연합사가 창설된 이래 미-한 정상이 공동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 동맹의 역지력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병사들의 노고를 위로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양국 경제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뒤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 (광야의소리 전제 허가 3/18/14)



단원고 교정에 심은 오바마의 '책스 목련', 그 의미는?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의 '책스 목련'에서 씨앗을 받아 기른 묘목을 단원고에 기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목련 나무는 아름다움을 뜻하고 또 매년 봄마다 새로 피는 그런 ‘부활’을 의미한다.”며 “그 모든 (희생된) 학생들과 의미를 같이한다고 생각해서 이 목련 묘목을 단원고에 마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목련을 처음 들여온 사람은 1829년 3월부터 1837년 3월까지 재임했던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였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심은 것이다. 이후 이 목련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에 대한 위로와 봄마다 다시 피어나는 ‘부활’의 뜻을 담게 됐다. (기사출처 : 조선닷컴)

“2014년 주미대사관 장학금 신청하세요”

한국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대상-
최우수 장학생에겐 3,000달러

주미 한국대사관(대사 안호영)이 ‘2014 재미 한인장학기금 장학생’을 선발한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4년제 정규 대학 학사학위 이상 과정에 재학중인 한국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지난 1년간 학교성적인 GPA가 3.5(예능계 지원자는 3.0)이상 이어야 한다.

한인 동포 학생은 물론이고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한국계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입양된 동포 학생, 유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재미 한인장학기금 장학금 수혜는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미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선발될 장학생은 50명 내외이며 미국에서 40여명, 캐나다에서 5~6명이 될 예정이다. 일반장학생이 30여명, 의학·법학·경영학 등 전문분야가 3명 내외, 음악·미술의 예능계 장학생 3명 내외, 장애학생 등 특별 장학생 5명 내외로 배정될 예정이지만 지원 규모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절될 수 있다고 대사관측은 설명했다.

특히 1인당 장학금 규모가 확일적으로 1,000달러씩이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장학생 선발자 가운데 학업 성적과 재능이 특출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최우수 장학생 1명을 선발, 3,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업성취도와 재능도 중요하지만 에세이 쓰기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

뉴멕시코한인회 칼렌더 KAANM CALENDAR

5월 9일 Ojo Caliente 한인회 어버
이님들 온천관광

5월18일 2pm ; Asian Festival @
Veterans Park (Louisiana and
Gibson)

해 고민하도록 하는 등 장학생 지원과정 자체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우수 에세이상을 신설, 전체 장학생 가운데 2명을 선발해 500달러씩 상금을 별도로 수여하기로 했다.

재미한인장학기금 사업 출범 시 추구했던 기본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선발되는 장학생 가운데 한인 동포 학생과 대학 학부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대사관측은 설명했다.

장학생 지원서 및 모집요강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http://usa.mofa.go.kr>)를 통해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된다. 지원서는 일반 장학생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대학소재지 관할 총영사관에, 전문과정 및 예능계 장학생의 경우 주미대사관 교육관실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6월13일까지 마감한다.

재미한인장학기금은 1981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출연한 100만달러, 1985년도에 추가 출연한 50만달러, 2003년도에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연한 80만 달러 등 모두 290만불달러의 기금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매년 미국과 캐나다지역 우수 동포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한국 유학생에게 지급되며, 지난해까지 모두 2,913명이 장학금을 받았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Indian School Rd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 (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한인회와 교회?

며칠 전에 지인으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 가운데 무관심과 방관에 관한 죄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저 구경만 하는 것도 큰 잘못이란 말이지요. 지난 4월 16일(수) 한국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CNN 방송으로 접한 첫 뉴스였습니다. 사고 난 직후부터 긴장과 초조함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요일 밤에는 밤 12시,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잠들었던 그 몇 시간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되지 않았나하며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지요. 낮에는 시간만 나면 한국 방송을 켜놓고 상황을 주시하곤 했습니다. 교회 모임이 있을 때면 이 사고에 연루된 실종자, 가족, 구조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한 밤중에도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이 사고에 대해 같은 심정을 가지고 관심과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미주 한인들은 비록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이란 뿌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한인 교회 역시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매우 예민합니다. 주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기본적인 체제에 한국이란 색깔이 물들어 있는 셈이지요. 다른 말로 교회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특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주 한인들이 모여 있는 큰 공동체로는 교회와 같은 신앙공동체와 지역 한인들을 대표하는 한인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교회는 교회이고 한인회는 한인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 한인회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 다. 아마도 이 지역에 많은 교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한인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 한인들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고 그 가운데서도 교인들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한인들과 한인회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인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한인회의 일이나 행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한인 모두 곧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뉴멕시코 한인회는 이 지역 한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지역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쓰는 기관이지요. 4년 전에 그러니까

김기천 목사

Rev. Kee-Cheon Kim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2010년 11월 17일 밤에 알버커키에서 “매리 한(Mary Han)”이란 이름을 가진 한인 변호사 한분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매리 한 변호사는 이 지역에서 특히 여성과 홀리스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분이요. 경찰 조사는 자살이라고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절대로 매리 한이 자살할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반이 지난 사건이지만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하려면 투표권이 있는 한인들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한인회가 맡아서 도와주고 추진해야 할 터인데 가족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다닌다는 것이지요. 한인회의 속사정을 모르는 저로서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에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어떤 일이라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인들의 권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단체로서 한인회가 역할을 감당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적거리는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세상과 떨어져서 초연하게 신앙생활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뉴멕시코에 각 도시에 한인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내 교회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라는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이라는 민족성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한인교회와 한인회 사이에 담을 부수고 우리 모두가 한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광야의 소리에 한인회 가입신청서를 게재해 주셔서 지역 교회의 많은 교인들도 올해부터는 한인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최귀분

6711 Academy Rd., NE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7001 Prospect Place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10
Office: (505) 888-1700

An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roker member of BRER Affiliates LLC. Not affiliated with Prudential. Prudential marks used under license. Equal Housing Opportunity.



알버커키의 봄철 정원관리

5월이 되면 알버커키(Albuquerque)의 본격적인 정원 생활이 시작됩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만남이나 식사를 정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이른 봄부터 부지런히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지요. 알버커키에서 5월은 정원을 관리하기에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를 보면 기온이 밤에는 평균 45도에서 55도이고 낮에는 75도에서 85도 정도입니다. 눈은 거의 오지 않고 바람은 가끔 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날에 풍요로운 햇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식물들과 나무들의 잎이 풍성해지고 꽃들은 만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봄철에 정원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정원을 구성하는 식물들을 알아야 합니다. 정원 디자인은 집집마다 정원의 크기 또는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원 식물들은 지역이나 디자인에 상관없이 일년초(annuals), 다년초(perennials), 과일과 채소(fruits and vegetables), 잔디(lawn), 그리고 나무(trees and shrub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각 구성된 식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기후와 토양을 잘 아는 것입니다.



Poppy 양귀비꽃



Dahlia 달리아

알버커키의 토양은 심한 알칼리성입니다. 나무나 식물을 심고나서 꼭 산성의 물질(copperas)을 주어 토양을 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근처의 가든 센터(garden Center)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식물을 심을 때에 적당한 퇴비(compost)를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섞는 비율은 퇴비 50대 흙 50입니다. 이때 흙은 기존의 땅에서 판 흙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년초(Annuals)와 다년초(Perennial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년초는 한 해만 살 수 있는 꽃을 말합니다. 다년초는 이와 반대로 매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알버커키에서 잘 자라는 일년초로는 verbena, cosmos, lantana, sweet potato vine, marigold, poppy, dahlia



Verbena 버비나



Marigold 금잔화



Pepper 고추



Tomatoes 토마토

서혁상 집사

Osuna Nursery
General Manager



등이 있고 다년초로는 red hot poker, creeping germander, creeping phlox, agastache, guara, penstemon, nepeta, maximilian sunflower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풍부한 햇빛(full sun)을 받을 수 있습니다.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선 죽은 꽃을 정리(clean up)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자주 할수록 더 많은 꽃을 계속해서 피우게 됩니다.



Maximilian Sunflower
맥시밀리언 해바라기



Butterfly Bush



Red Hot Poker



Penstemon

5월은 과일과 채소의 종류에 따라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고 또 이른 봄에 심은 채소(cool season vegetables)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퇴비(compost)를 꼭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비료(nitrogen plus good phosphorus)를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5월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물의 양도 늘려야 합니다.

건강한 잔디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물이 필요하고 봄과 가을에 비료를 줘야 합니다. 비료로는 16(질소/nitrogen)-8(

인/ phosphorus)-8 (칼륨/potassium)과 높은 비율의 유황(sulfur)과 철분(iron)이 필요합니다. 유황(sulfur)은 ph level을 낮춰줌으로써 잔디가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철분(iron)은 잔디의 색을 더욱 푸르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월은 나무와 관목을 심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잘 자라는 나무로는 ash tree, Chinese pistache, honey locust, hackberry, desert willow, ornamental flowering pear 등이 있고, 관목으로는 salvia, Russian sage, sand cherry, lilacs, caryopteris, barberry, butterfly bush, rose of Sharon, apache plume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와 관목은 풍부한 햇빛(full sun)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에는 좋은 비료와 뿌리를 빨리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root stimulator)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무나 관목을 심은 뒤 2주 동안은 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Lilac 라일락



Apache Plume



Rose of Sharon 무궁화



Desert Willow

좀 더 많은 정원 정보를 얻고 싶다면 가까운 community garden centers나 independent garden centers 또는 The Council of Albuquerque Garden Club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Local Garden Centers:

Osuna Nursery www.osunanursery.com 505-345-6644

Jericho www.jerichonursery.com 505-899-7555

(Alameda) 505-508-5059 (Pan American)

Trees of Corrales www.treesofcorrales.com 505-898-2327

Plant World www.plantworldinc.com 505-898-9627

Local Garden Clubs:

Albuquerque Master Gardeners abqmastergardeners.org/ 505-243-1386

Albuquerque Rose Society www.albuquerquerose.com/ 505-255-9233

New Mexico Orchid Guild www.nmog.org/ 505-379-6786

The Council of Albuquerque Garden Club www.albuquerquegardencenter.org/ 505-296-6020 ■

출퇴근 사용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안돼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자동차 비용공제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는

1.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살 것인지 회사 명의로 살 것인지?
2. 자동차를 사업비용으로 100% 공제할수 있는지?
3. 출퇴근시에 사용하는 비용도 공제가 되는지
4. 리스와 구입의 경우 어느 것에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그 외에 반드시 비용공제를 받기위해 비즈니스나 혹은 비지니스 소유주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용하여야만 비용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개인명의로 살 것인지 회사 명의로 살 것인지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업종이 호텔이나 운송회사 혹은 신문사처럼 배달이나 배송 목적으로 자동차를 100% 사용하시는 경우는 회사명의로 사서100%공제 받으시고 업종이 세탁소·테리야기·그로서리 스토어처럼 자동차를 비즈니스에 100%사용하지 않으시고 개인용도로도 사용하시는 경우는 개인명의로 사셔서 사업용으로 쓰신 부분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에 사용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혹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장소에서 회계업무를 위해 회계사무실을 방문한다든지, 회사에 필요한 비품을 사기 위해서 혹은 비지니스에서 팔기 위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비지니스 장소를 방문한다든가 등 수입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지니스상 사용된 모든 비용이 공제대상입니다.

리스와 구입의 경우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리스의 장점으로는 ▲처음 사실 때 Down Payment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lease Payment이 100% 공제가능하고(100% 비지니스 사용시) ▲2~3년에 항상 새로운 차를 사실 수 있고 ▲할부금이 저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리스의 단점으로는 ▲마일리지가 제한되며 ▲자산가치는 "0"라는 점이다.

구입의 경우는 ▲자동차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산가치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볼수 있으므로 어느 것이 특별하게 세금혜택을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비록 타인명의로의 자동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지니스에 사용한 비용만큼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애틀N 2013-08-05 세금이야기에서 전재]

김&김 합동공인회계법인(acacia@kimnkimcpa.com)

소 - 근면과 성실의 상징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가축을 우리는 육축 六畜이라고 불렀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소다. 농경민족이었던 우리에게 농사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축이었으며, 물건을 운반하는 데에도 쓰였다. 그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소를 짐승이 아닌 세대구성원의 하나로 여겼다. 외양간을 만들어주고, 쇠죽을 끓여 먹였으며, 소가 듣는 데서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진위·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 의지를 가진 존재로까지 취급했던 것이다.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소는 커다란 두 눈만 껌껌거리릴 뿐 아랑곳하지 않는다. 꾀부리지 않고 묵묵히 맡겨진 일만 하는 성실함을 지니고 있다. 멧을 쓰고 쟁기를 끄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소, 느릿느릿 걸어도 백리를 간다는 뜻의 우보牛步는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큰 체구에, 하는 품이 묵직해서 믿음직스럽고 여유롭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쳐 없앤 뒤, 성채였던 도림桃林에 소를 놓아 길렀다는 고사가 있다. 그 연유로 소를 도림처사라고도 부르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뜻있는 선비들이 초야에 묻혀 복사나무가 무성한 곳에 소를 풀어놓고 살면서 스스로를 도림처사라 부르기도 했다.

음력 정월의 첫 소날 [上丑日] 을 소달기날이라고 한다. 소를 부리지 않고 위로하는 날, 그날만은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콩을 많이 넣어 끓인 쇠죽을 배불리 먹이는 풍습이 있었다. 쇠고기를 써는 도마도, 소가 돌리는 연자방아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월대보름에는 밤·떡·나물로 상을 차려 외양간 앞에 놓아두고, 한 해 동안 소가 건강하기를 빌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는 소에게 애정을 기울였던 것이다.

내 어릴 적 시골집에는 황소 한 마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았다. 넓은 마당 한쪽 귀퉁이의 쇠말뚝에 매인 채 긴 고삐를 당기며 빙빙 돌기를 좋아하면서도, 닳고 닳은 대비로 온몸을 살살 쓸어주면 마치 계속하라는 듯 가만히 서있어 주던 소. 얼굴에 날아드는 파리는 귀로, 몸통에 붙는 것들은 긴 꼬리로 쉽게 쫓아버린다. 그늘진 곳에 비스듬히 앉아서 눈을 지긋이 감은 채 되새김질하던 소는 마치 구도자의 표상이었다.

여물을 썰 때의 작두질이나 쇠죽을 쑤는 일은 어린 내 몫이었다. 논밭갈이가 끝나 소를 부릴 때가 아닌 한여름이면, 학교에서 돌아와 황소를 몰고 들이나 가까운 야산으로 나가는 게 내 일과이기도 했다. 움푹 들어간 왼쪽배가 차오르도록 연한 풀을 뜯기려면 넓은 들판 여기저기를 몇 시간이고 헤매어야 했다. 돌아오는 길에 시내로 끌고 들어가 맑은 물로 온몸을 골고루 씻어주면 털에 윤이 흘렀다.

어려서 맺어진 나와 소의 인연은 참으로 각별하다. 수의사면허를 받고, 수의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된 뒤, 한우에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질병까지 다루었으니……. 1960년 말부터

전라남도과 경상북도의 일부 지방에서 한우가 갑자기 죽어 넘어지는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가 농가의 주요재산목록에 속했기 때문에 수의학계에서는 큰 문제로 다루었다. 마침 그때 외국에서도 비육소목장에서 소들이 갑자기 죽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많은 연구가 수행된 나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되었지만, 질병은 1990년대까지 계속해서 나타났다. 1988년과 1993년에는 농림수산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각각 여천군과 함평군에서 나타나는 급성한우폐사의 원인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팀이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두 번 연구의 책임자가 된 나는 20여 년이 넘는 경험과 문헌조사에서 얻은 지식으로 소가 갑자기 죽는 원인을 밝혀내어 학계에 보고했다. 그 질병은 다시는 더 발생하지 않는다.

소는 추운 곳에서도 잘 지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성질이 곧아 융통성이 없게 보이기도 하나 한없이 순한 동물이다. 소띠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해서, 꾸준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예가 많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대체로 믿음성이 있는 반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의견을 좀처럼 굽히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유머가 부족한 느낌을 주며, 겉으로는 별로 개성이 없고 엄격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기만성형이다. 우둔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우리는 벽창호라고 부른다. 이 말은 평안북도의 벽동×창성 지방에서 나는 아주 크고 역센 소 ‘벽창우’에서 유래한 것임도 알아두자.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외국에서 들여온 젓소며 고기소를 흔하게 볼 수 있고, 쇠고기도 수입해서 먹는다. 하지만 고기 맛이 뛰어나게 좋은 한우를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 전통한우 하면 누런 황소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누런 몸통에 칙닝쿨이 우거진 듯 검은 줄무늬가 져있어 얼룩소라고 불리던 칙소도 전통한우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한우의 30 퍼센트를 차지했던 소, 정지용의 시 <향수> 에 나오는 소다. 900킬로그램까지 크기도 하는 이 소는, 지금은 수가 적어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에나 가야 볼 수 있다. 몸 전체가 검은 색인 제주도종 흑한우도 전통한우다. 흑한우의 고기는 명품으로 알려져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진상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한 때 멸종될 뻔했다. 다행히 지금은 제주도에서 흑한우 사육목장을 따로 만들어 보호하고 있다.

유사이전부터 사람을 이롭게 해온 소. 얼마 전에는 남북분단 반세기만에 소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으로 떠오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강하류 경기 김포군의 최북단 비무장지대에 있는 아주 작은 유도라는 섬에, 여름휴수 때

예배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소 두 마리가 살고 있었다. 통제구역 지뢰밭이라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눈에 어느 날 한 마리가 자취를 감추었고, 남은 한 마리도 먹을 것이 없어 하루가 다르게 여위어가며 비실거리고 있었다. 어떻게든 살려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지역방위를 맡고 있던 해병청룡부대원들이 1997년 1월 17일에 어렵게 구해내는 데 성공했다.

소의 해에 남북대치의 상징인 곳에서 소를 살리려는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어서, 남북문제에 서광이 비치기를 바라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구출된 황소에게 '평화의 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황소는 김포시농촌지도소에 살면서 암소 '통일염원의 소'를 맞아, 다음 해에 수송아지 '평화통일의 소'까지 본다. 그렇게 태어난 평화통일의 소는 조국의 평화통일염원을 지니고, 2000년 초 북제주군 우도로 옮겨져 평화의 소 3세를 많이 만들어냈다. 또한 1998년 6월에는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500 마리의 소떼를 트럭에 나누어 싣고,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환경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판문점을 통과해 북으로 향하기도 했지만, 인간들의 속된 마음을 바뀌놓지는 못하고 말았다.

우리의 신화·민속·종교·역사·문학 등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동물이 소다. 소를 찬양한 시인묵객들의 글이나 그림은 소달구지에 가득 싣고도 남는다고들 말한다. 민속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해마다 농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물로 바쳐졌다. 유교에서는 의를 상징하는 동물로 본다. <삼강행실도>에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구하고 죽은 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불교에서는 <심우도>로 사람의 진면목을 소에 비유한다. 보조국사 지눌의 호는 목우자牧牛子였으며, 작자·연대 미상의 심우가牛歌는 허무한 속사에서 벗어나 불도에 전념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가사다. 도교에서는 유유자적의 표상이다. 김홍도의 그림 <기우선인도>에는 도교에 심취한 조선시대의 선비가 소를 타고 선계로 향하는 꿈을 꾸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성리학자이며 문신인 권근權近은 <기우설>이라는 수필에서, 달 밝은 밤이면 가끔씩 소 잔등에 술동이를 싣고 명승지를 찾아나서는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소를 타고 다니는 즐거움은, 보되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보면 사물들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자신의 비밀까지 드러내 보여주어 묘미를 깨닫게 된다는 데에 있다고 설파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유유자적하던 옛사람들의 자취나 더듬으며 그리움을 달래볼까. ■



김홍도의 그림 <기우선인도>

종려주일 기도문

권구자 권사



사람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제 긴 겨울은 지나가고 저희들에게 새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해주신 주님의 크나큰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오만했던 마음들 모두 깨어지게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이 7일 동안의 고난 주간 만이라도 저희자신들의 뜻을 쫓지 말고 주님의 뜻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원하옵건데 우리모두 주님의 사랑에 눈뜨는 법을 깨닫고 고난 주간에 당하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닮고파 하는 간절한 소망을 잊지않게 하여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길에 동행케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내지 영적 혹은 육적인 고통속에 시름하는 모든이들은 오직 주님만이 치유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육체의 병이 들었을때 주님께서서는 금방 낫게 해주실때도 있으신가 하면 몇달이 지난후에 낫게 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낫지않은 상태로 그냥 데려 가실때도 있사온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결국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낫게 하시어 영생을 주시기에, 저희들은 그 영원히 사는것을 믿사오니 모든것, 이세상 만사,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기를 이시간 다시한번 머리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의 각기관과 주일학교 주님지켜 주시고 자녀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 하시어 축복 하여 주시옵시고, 이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 하실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 드립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또 정성껏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사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

두초 디 부오닌세냐 (Duccio di Buoninsegna)는 13세기말에서 14세기초에 걸쳐 이탈리아 투스카니주의 시에나(Siena) 도시에서 작품 활동을 해온 화가이다. 그의 불후의 대작으로 <마에스타> (Maesta)가 꼽힌다. 이 작품은 시에나 성당의 제단에 장식대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양면에 그림이 그려졌다. 앞면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그를 둘러싼 천사와 사도들로 채워진 그림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여러장의 패널에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그림들로 구성되었다. 이 그림이 완성되어 성당에 설치되는 1311년 6월 9일은 온 도시의 상점은 문을 닫고 거리에는 종을 울리며 긴 행렬이 이어지는 축제 분위기에 싸이게 되었었다고 한다. 이렇게 온 도시 시민의 관심을 샀던 그림이 세월이 지나면서 푸대접을 받든 듯 하다. 400년 뒤에 와서 시에나 성당 제단의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두 제단으로 작품을 분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훼손된 그림도 생겼고 일부분의 그림들은 매각처분을 하게 되었다. 작품의 진가를 모르고 소홀히 다룬 이런 처사의 덕분으로 매각된 10여개의 작품을 오늘날 유럽과 미국내의 여러 도시에 있는 미술 박물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소개하는 <사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 도 <마에스타> 장식대 뒷면에 부착된 패널에 그려졌던 그림중 하나인데 지금은 워싱턴 DC에 있는 National Gallery of Art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두초는 그림 속의 세계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음을 볼 수 있다. 노랑색 바탕의 하늘, 초록색의 바다와 예수가 서있는 암석의 땅으로 갈라 놓았다. 중앙에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가 배위에서 그물을 당기던 중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에게 몸을 돌려서 응답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두 손으로 그물을 잡은채 갑작스런 부름에 당황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행동하는 외향적 성격의 베드로와 침착한 내향적 성격의 안드레의 차이점이 그림의 표정속에서도 보여진다. 그 당시의 어부는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고 가난한 생활을 했을것이다. 어부의 옷 색깔은 옅은 바란듯한 색으로 이들의 형편을 표현해 주고 있다. 반면 바닷가 바위 위에 맨발로 서 있는 예수의 옷 색깔은 진한 색으로 표현했다. 빨간색의 옷은 그의 열정을 상징하고 있고 보라색의 옷 색깔에서는 그의 권위를 표현해 주는 것 같다. 그가 서있는 자리가 흙 바닥이 아닌 바위 위인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 바위는 곧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새 이름으로 베드로라고 지어주었는데 베드로는 곧 바위, 반석이란 의미가 된다. 이름을 지어준 다음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의 그림 속에서 예수는 바위위에 서서 바른 손을 내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마태복음 4:19)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가 되어 달라는 초청을 하는 듯한 동작으로도 보이지만 예수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근엄한 모습이어서 정중하게 명령을 하는듯한 느낌을 준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마태복음 4:20에서 말해주고 있다. 보잘것 없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두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욱 더 담대한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였다. 베드로는 하루에 3천여명의 회심자를 얻은 만큼 위력적인 전도를 했고 로마까지 가서 기독교를 전파

했다. 안드레도 러시아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 스코트랜드 사람들은 안드레를 그들의 수호 성인으로 여기며 국기도 흰색의 X자형 안드레 십자가를 파란 바탕에 둔 기를 쓰고 있다.

부름에 응하는 순종은 큰 은총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엄청난 큰 일도 해 내게 된 사실을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 볼수 있다. 오늘의 우리도 여러가지 간접적인 형태로 예수의 부름을 받을때가 있다. 사람을 통해서 부탁 받는 일 같지만 실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잘 분간해야 될 것이다. 우리도 부름에 순종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본을 따라야 하겠다. (글:편집부) ■

참고문헌: The Story of Painting: The Essential Guide to the History of Western Art by Sister Wendy Beckett



The Calling of the Apostles Peter and Andrew (from the Maesta), c. 1308-1311.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노아>는 어떤 영화일까?

영화 <노아>는 파라마운트영화제작사가 제작비 1억2500만 달러를 들여 만든 2014년 3월에 개봉하게 된 영화이다. 이 영화를 감독한 대런 아로노프스키(Darren Aronofsky)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에 대해 “성서를 배경으로 한 영화중 가장 성서적이지 않은 영화” 라고 말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짧은 내용을 2시간 19분 짜리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성경과 일치 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과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한 설정을 도입하여 방대한 스케일의 판타지 영화로 만들었다.

영화 <노아>는 한국에서도 미국보다 앞서 3월20일 개봉되었는데 개봉 23일만에 200만 명의 누적 관객수를 돌파하는 좋은 성과를 얻었고 미국에서는 3월28일에 개봉한뒤 첫 주에 박스오피스(Boxoffice) 1위를 차지했고 수익은 4,4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비록 1위의 자리를 한 주간 밖에 유지할 못했지만 4월14일 현재로 8,487만달러의 수입을 기록하는 좋은 흥행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4월 현재에 전 세계적 통계를 보면 40개국에서 상연 중인데 그 중에서 가장 흥행 성적이 좋은 나라가 러시아, 한국, 멕시코 순위로 꼽히고 있다.

배역

- 러셀 크로(Russell Crowe) - 노아(Noah) 역
- 제니퍼 코넬리(Jennifer Connelly) - 나메(Naameh: 노아의 처) 역
- 엠마 왓슨(Emma Watson) - 일라(Ila: 노아의 며느리) 역
- 로건 러먼 (Logan Lerman) - 함 (Ham: 노아의 차남) 역
- 더글러스 부스(Douglas Booth) - 셈(Shem: 노아의 장남) 역
- 앤서니 홉킨스(Anthony Hopkins) - 므두셀라(Methuselah: 노아의 할아버지) 역
- 레이 윈스턴 (Ray Winstone) - 두발가인 (Tubal-cain) 역

줄거리

창세기 첫 부분의 천지창조 이야기에 이어 아담과 이브가 쫓기고 에덴동산에서 쫓겨 나오고 그들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감시자(Watchers)의 보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타락한 천사인 감시자는 팔이 여러개 달린 돌 거인 골렘이라고 말해준다. 감시자는 가인과 그의 후예를 도와 문명의 발달을 도와 주었으나 인간은 타락하고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차서 인류의 종말을 오게한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예가 구원되어 인류 절멸후 새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영화가 시작된다.

어린 아이때 노아가 아버지 라메크와 언덕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본 영화가 시작 된다. 이때 두발가인을 선두로 하는 무리가 그들의 땅을 뺏으려고 습격해온다. 아버지가 살해 당하고 어린 노아는 도망쳐서 목숨을 구한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후 장성한 노아(러셀 크로)가 아내 나메(제니퍼 코넬리)와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거느리고 살아간다. 어느 날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자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싸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는 기적을 본다. 그날 밤 꿈에 노아는 그의 할아버지 므두셀라(앤서니 홉킨스)가 기거하고 있는 산을 보게 되고 온세상이 홍수로 잠기는 장면을 본다. 노아는



창조주께서 대홍수의 계시를 주시는 것으로 깨닫고 할아버지를 만나 조언을 얻고자 길을 떠난다. 도중에 아버지를 살해했던 두발가인의 무리들이 많은 사람을 죽인 현장에 도달하게 된다. 흩어져 있는 시체들 사이에서 아직 살아있는 여자 아이 하나를 발견한다. 일라라고 하는 아이를 구출했을때 두발가인의 무리에게 발견되어 노아의 가족일행은 쫓기게 되고 타락한 천사, 감시자(Watcher)로 알려진 돌 모양의 거인이 사는 곳으로 피신한다. 이 사건으로 일라 여자 아이는 양녀가 되어 노아의 가족이 된다. 이때 입은 부상으로 일라는 아기를 낳수 없는 불임의 여자로 성장해 가게 된다.

노아는 할아버지 므두셀라를 만나고 그로 부터 에덴에서 대대로 물려 내려온 씨앗을 받아온다. 씨앗을 땅에 심자 황무지에 샘이 터지고 개울이 생기고 순식간에 나무가 자라 나기 시작해서 숲을 이루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다. 노아는 이 숲의 나무를 베어 방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감시자, 돌거인들은 방주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게 된다.

8년후 방주는 완성된 모습을 갖게 된다. 동물들이 몰려 들어 오는 장관을 보여준다. 방주에 들어온 동물은 향로의 향을 피워서 잠들게 만들었다. 노아는 세 아들에게 짝을 지어줄 배필이 필요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사는 켈프로 내려 가서 세명의 여자를 택해서 방주로 데려올 생각으로 나선다. 일라가 있긴 하지만 불임이어서 며느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사는 켈프로 와서 보니 두발가인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보고 창조주의 계시는 악에 만연되어 있는 인류의 멸종을 계획하신 것으로 믿게 된다. 자신의 가족은 마지막 인간이 되어야 하고 인류는 이 세상에서 멸종 되는게 창조주의 뜻으로 믿게 된다. 그 뒤에 일라(엠마 왓슨)는 므두셀라 할아버지를 찾아가 그의 불임을 고쳐달라고 한다. 므두셀라는 일라가 아기를 가질수 있게 축복해 준다.

홍수가 시작 되기 직전에 차남 함은 스스로 자기 아내될 여인을 찾기위해 나선다. 나엘이란 여인을 데리고 오는중 방주를 탈취하려는 두발가인 군인들의 습격을 만나 도망치는 와중에 나엘이 뗏에 걸려 쓰러지고 노아는 위기에서 나엘을 버리고 아들 함만 데리고 방주로 피신함으로 인해 함과 아버지 노아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피했으나

몰려 오는 두발가인과 무리들을 막아내는 감시자와의 싸움이 전개된다. 무리들을 모두 몰려 쳤으나 두발가인만은 방주에 있는 창으로 기어 들어가 방주속에 잠입 한다. 땅에서 물이 치솟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대홍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종말을 맞게 되는 처참한 장면으로 이어진다.

방주에 숨은 두발가인은 함에게 들키지만 함을 설득시켜서 노아가 나엘을 구출하도록 돕지 않은 사실을 들추며 아버지 노아를 증오하게 만든다. 일라가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된다. 이때 홍수의 빗줄기가 멈춘다. 노아는 탄생할 아기가 여자 아이면 죽이겠다고 말한다. 창조주의 뜻이 인류의 멸종인데 여자아이로 인해 자손이 이어진다는 것은 창조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노아는 믿는다. 얼마 안되어 일라는 쌍둥이 여자 아이를 낳는다. 노아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손에든 칼을 놓고 만다. 창조주의 의를 따르려던 의지를 포기 한다. 방주에 숨어 있는 두발가인은 함을 설득 시켜서 노아를 죽이고자 한다. 격투중 방주는 육지에 좌초되면서 위기에 몰렸던 노아는 살게 되고 두발가인은 죽게 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은 새땅에서 새 생활을 하게된다. 가족간에 대립 끝에 살아 남기는 했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 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자책속에서 가족과 떨어져 산다. 어느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알몸으로 잠이 든 장면이 나오고 이를 함이 보게된다. 잠시후 셈과 야벳이 담요를 들고 와서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준다. 아버지와 대립했던 함은 가족을 떠나 혼자 살겠다고 떠난다. 일라는 노아가 두 딸 아이를 죽이려 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실행하려 했으나 아기를 보자 노아의 마음에 치 솟는 사랑이 그의 마음을 바꾼 사실을 이해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헤어져 살던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다. 산 위에서 노아는 아기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된다. 새 인류의 시조가 되어 번성해 나가길 아기에게 축복하자 하나님이 보낸 무지개가 스크린을 채우게 된다. 이상은 IMDb. com에 실린 "Synopsis for Noah" 를 번역해서 요약한 것이다.

부정적인 반응

이 영화의 관람 평은 양 극단으로 몰려 있는 듯 하다. 부정적인 반응은 주로 기독교계에서 나오고 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추가할때 본래의 성경 내용을 왜곡해서 보여주는게 많아서 성경을 잘못 이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뉴욕에서 발행된 기독교일보(2014.4.9)에서 조희창 목사의 특별기고문 "영화 '노아'를 바라보는 이민교회의 시각"이란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글을 발표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고, 애매모호하게 메세지를 전달하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잔인하게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려 집니다.

이어서 영화를 보서는 안된다, 봐도 된다는 논란에 대한 언급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 놓았다.

신앙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적으로 잘 훈련된 분별력을 갖춘 믿음의 성년자들은 이 영화를 성경의 내용과 비교하며 분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그리고 분별력과 성경적 세계관의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미성년인 어린이, 청소년들이나, 초신자들은 안보는 것이 좋은 영화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전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부러 더 영화를 보고 성경과 비교해서 영화를 접할 초신자나, 비크리스천,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가이드하고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2014.4.10) 강덕영 장로칼럼-영화 '노아'에서도 비슷한 평을 내 놓았다.

이 영화에서 하나님을 인간 멸살을 하려는 악한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노아의 자유 의지로 인간의 멸종을 막는다는 스토리는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 껍질이 마치 드라빔처럼 노아의 자손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은, 사탄을 창조주로서 숭배한다는 느낌마저 줄 정도로 충격적인 결말이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비신자들은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만큼 충분한 설득력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

기독교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 서울에 있는 중앙성결 교회에서는 30-40대 부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담임목사와 영화 <노아>를 함께 관람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관한 기독교 일보 Seattle (2014-4-1)의 기사 "3040이 함께 본 영화 <노아>, 과연 어땠을까"를 보면 아래와 같은 보도가 있다.

영화를 보기에 앞서 한기채 목사는 인사말을 전했다. 한 목사는 "오늘 보실 영화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노아'에 대한



것"이라며 "하지만 영화는 꼭 성경대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대로 만들면 관객들이 재미 없어서 안 올지도 모른다"며 "문화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옷을 입혀서 음악이나 미술, 영화나 연극으로, 소설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한기채 목사는 "분별력만 갖는다면 뭐든지 잘 활용할 수 있으니 (성경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유의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며 "감독도 유명한 사람으로 유테인이고 성경 주변 자료를 많이 연구해서 나름대로 표현하려 했다고 한다"고 했다. 한 목사는 "영화에는 감독의 상상력이 가미돼 있고 이야기이니 재미도 있을 것"이라며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은 실제 사이즈로 만들었다는데, 작가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려 했는지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했다.

관람후에는 토론의 기회를 가졌는데 이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성도들은 영화 관람 후 다양한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

영화는 방주에 타는 사람들조차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감독은 정의와 사랑을 놓고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노아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교회는 성경 내용과 영화를 비교하는 데 급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미국 반응은 한국보다 훨씬 긍정적이라는데, 한국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는 말도 했다.

깊이있는 평도 눈에 띄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아이를 죽여야 했지만, 손녀들을 보는 순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었다”, “노아가 손녀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보았고, 죽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눈물이 흘렀다”, “원칙주의자이면서 순종만 강요하는 노아가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하고 동물들만 남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아이들을 보면서 스스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같다.” 기독교적 휴머니즘이 느껴진다”는 의견들이었다.

기독교문인협회장을 지낸 소설가 현길연 씨는 “성경을 소재로 의미를 재생산한 작품에 대해 기독교적이나 아니냐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특히 이 문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비평해야지, 소재적 차원으로 비평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지적했다.

영화의 볼거리와 연기 측면에서 칭찬의 글을 WOW한국경제 TV(2014.4.7) “‘노아’ 태초엔 아무것도 없었다…그리고 지금?” 이란 글에서 아래와 같은 글이 발표 되었다.

‘노아’는 생생하고 화려한 볼거리로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이 영화를 보며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 중 하나는 바로 거대한 ‘노아의 방주’이다. 이 방주는 CG가 아닌 실제 존재하는 ‘방주’다. 이 방주는 120평, 6층 건물 규모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직접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영화 속, 거대한 폭우가 세상을 전부 집어 삼킨 가운데 방주가 솟아오르는 장면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실제로 제작된 방주뿐 아니라 최첨단 CG로 구현된

아름다운 장면들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노아의 방주’를 오르는 어마어마한 수의 많은 동물들, 죽음의 땅에 물이 흐르고 짝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 타락천사로 표현되는 감시자의 모습 등 화려한 영상들은 관객들을 황홀경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출연진들의 훌륭한 연기는 ‘노아’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2001년 ‘뷰티풀 마인드’(감독 론 하워드)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러셀 크로우와 제니퍼 코넬리는 13년 만에 또 한번 영화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 둘은 ‘노아’에서 세기의 운명을 짊어진 부부의 역할을 맡았다. 노아의 신을 향한 강한 신념은 극의 후반부로 갈수록 변모해 점점 광기를 드러낸다. 러셀 크로우는 묵직한 내면연기로 신의 계시를 받은 ‘노아’를 충실히 보여준다. 묵묵히 노아의 옆을 지키는 아내 니메 역의 제니퍼 코넬리의 연기 역시 일품이다.

결론

영화 <노아>는 창세기 5-10장에 나오는 얘기에 근거를 두고 만든 영화이지만 성경에 써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다. 성경을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 영화를 본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기독교인이 아닌 관객에게 자칫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수 있는 종교영화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처리한것 같다. 하나님이란 말 대신 창조주란 용어를 쓰고 있는것도 그런 이유로 인한것 같다. 이 영화를 보는 많은 비기독교인이 <노아> 영화로 인해서 성경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할수 있을것이다. <노아> 영화는 성경 공부에 위해 만든게 아닌 하나의 창작 작품으로 이해하고 관람하면 기독교인이든 비 기독교인이든 즐길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 된다.

영화의 전반부는 놀라운 스펙타클로 숨 가쁘게 넘어 가지만 후반부는 다소 늘어지는 감이 있어 2시간 18분의 상영시간이 조금 길다는 감이 있고 마지막 끝맺는 부분이 좀 더 감명을 줄수 있었더라면 더 좋은 우수작이 될수 있었을것 같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성경 내용과 영화 내용과 충돌되는 주요 논란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고 <노아> 영화소개를 마친다. ■

(글:편집부)

영화 노아, 성경과 충돌하는 부분

영화 '노아'	논란 내용	성경
-노아 부부, 큰아들 셈 부부, 둘째와 셋째아들 함과 야벳, 방주에서 태어난 셈의 쌍둥이 딸 -노아의 적 '두발 가인'	방주에 오른 자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영화 속 셈의 쌍둥이 손녀는 허구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로 기록돼 있으나 방주와 관련 없음
-노아는 인간에 대한 완벽한 심판을 위해 자신과 자손까지 멸종시키려 함	신의 계시에 대한 노아의 해석	-신의 계시를 받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오르 것은 인류 존속을 위한 것이며, 신의 은혜를 입은 것(창세기 6장 8~9절)
-노아는 방주 건설시 '감시자들'의 도움을 받음 -방주를 만들면서 '두발 가인'을 비롯한 키인의 후예들과 싸움	방주를 만드는 과정	-'감시자들'은 허구 -방주와 키인의 후예를 연결 지은 직접적 기술은 없음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에 반항해 '두발 가인'을 숨겨줌 -쌍둥이 손녀를 속이려는 노아와 큰아들 부부 및 아내와의 갈등	방주에서의 갈등	-기술 없음 -방주의 규모,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기고 빠지는 과정만 순차적으로 설명
-둘째 아들 함이 가족 길을 떠남	방주 이후의 상황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인류가 번창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사는 모습을 둘째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자, 잠에서 깬 노아가 힘을 저주(창세기 9장 22~27절)
-노아의 첫째 며느리 일라는 노아가 구원해준 인물 -노아는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뱀의 꾀를 자손 대대로 물려줌	기타 논란이 된 설정들	-며느리에 대한 기술 없음 -뱀의 꾀에 대한 기술 없음

수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사 40: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말 3:1)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 4:5)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역사속에서 성취될 때 그 큰 일을 준비시키는
사자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셨으며 말씀하신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요한이 보냄을 받아 유다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눅 1:5-25, 마 3:1-12).

이제 주님의 재림이 급박한 마지막때에 엘리야와 모세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될것이다(계 11장: 두
증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나라 복음전파가(눅 24: 44-47) 땅끝까지 이르고(마
24:14, 행 1:8) 이방인의 총만한 수와 유대인의 총만한 수를
채웠을 때(롬 11:25-32, 계 7장) 일곱째 나팔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되신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새하늘과
새땅)는 완성되는 것이다(계 10:7, 11:15, 19장-22장).

나는 한국에서 40여년의 목회를(예장 통합측 교단) 내려놓고
선교에 전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전도목사”(선교사)로 허락을
받아 미얀마를 비롯해서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의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 지역에서 Pastor's Conference를 개최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로하며 은혜를 받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뜻있는 봉사를 하는것이다.

(2008년부터 미얀마에서 8차, 캄보디아에서 1차). 작은딸
가정의 초청으로 2012년 10월에 이곳 엘버커키에 와서도 그
지역의 선교사역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Las Cruces의
한인침례교회를 돕고있다. 오는 9월에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같은
사역을 하게되고 한국에서도 집회를 인도하거나 특별성경공부를
갖을 예정이며 2015년 년초에는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에서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멕시코 광야(?)에 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선포하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 고난의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 된 사역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고 외쳐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세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그야말로 말세지말이기 때문이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언약 (레 26장, 신 28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관되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열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건 (1948년 5월 14일)은 결정적인 말세의 증거이다 (겔 37장). 3세기,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반유대주의 정서가 형성되어지고 천주교회의 영향을 받은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화는 철저하게 유대인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의 유대인을

이 준우 목사

Las Cruces한인 침례교회



향한 언약은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엡 3:1-6). 지금은 전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때이며 앞으로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겔 38장-39장)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겔 39:21-29).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롬 9
장-11장).

2.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살후 2:1-12). 그는 다니엘서에서 계시하고 (단 2
장, 큰 신상; 단 7장, 네 짐승)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신
(계 11장, 13장, 17장) 7머리 10뿔에서 나오는 작은뿔,
짐승인 것이다. 그는 구 로마에서 일어나 세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까지 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핍박하다가 재림하신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멸망할자이다 (계 19장).



미얀마 양곤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준우 목사 (2014.1.20-23)



미얀마 양곤 집회를 마치고 모두 함께

3. 세계교회가 주의 재림과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외면하고 자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변질되어가고,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영적으로나 복음적으로 타락해가는 현실은 크게 책망받아 마땅할 것이다 (계 3장: 사데교회나 라오디게아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마 24:32-51),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고후 11:3-4). 이리므로 엘리야나 모세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세례요한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야 한다.

뉴멕시코 광야에서 준비하고 여생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하다가 죽기를 기도한다.

이 지역이 한인교회와 미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한다.

Maranatha!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후 2014년 부활절에

이 준우 목사 (Email: kingdomjx46@gmail.com) ■



미안마 양곤 집회 (2013.2.18-21)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yjo@hotmail.com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 시간: 오후 12:00 pm
\$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뉴멕시코 성결교회 (Albuquerque)

전종철 목사 (505) 238-3551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주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87106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이준우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 시간: 10:30 am
\$ 주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8801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 (Tue-Fri) \$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렬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 5:45 am (Tue-Fri)
수요 예배 \$ 매주 수요일 7:00 pm
\$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652-4627)
\$월모임: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웹사이트: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월~토)
성경공부 \$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453-5461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주 한인회 회원 가입 신청서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Membership Application / Renewal

회원 성명 Member Name 한글 _____ English _____

배우자 성명 Spouse Name 한글 _____ English _____

주소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Code _____

전화 Telephone 집 Home _____ 핸드폰 Mobile _____

직업 Occupation _____

이메일 Email _____

1 년 회비* Membership Fee Per Year*

_____ 정회원 Individual \$30.00 _____ 가족 정회원 Family \$40.00
_____ 임원 Admin. Staff \$50.00 _____ 이사회비 Board of Director \$200.00
_____ 기부금 Donation \$ _____

신청서와 회비를 보내실 주소:

KAANM

Please mail application & check to: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관심 있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Please check all your areas of interest.

_____ 한글반 Korean Language Class _____ 영어반 English Language Class
_____ 고전무용반 Korean Folk Dance Lesson _____ 문화활동 Cultural Activities
_____ 오락, 친교 Entertainment, Fellowship _____ 스포츠, 여가 Sports & Recreations
_____ 건강, 복지 Health & Welfare _____ 모금행사 Fund Raising Activities
_____ 회보, 간행물 Newsletter & Publications _____ 기타 Other _____

재능 또는 도울 수 있는 일 Your special skills or expertise:

건의 사항 Ideas and Suggestions:

날짜 Date _____ 서명 Signature _____

* 뉴멕시코 한인회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서 IRS 501 (C)(3) 규정에 의거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체임으로 회비 및 기부하신 금액은 세금보고 시 수입에서 공제 (tax deductible) 하실 수 있습니다.

*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is a nonprofit, tax exempt 501 (C)(3) corporation under the IRS code, and all membership fees and donations are tax deductible.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 www.kaanm.com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505) 271-1777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주택용자 Loan Officer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건축/페인트 Painting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 tors (505-249-8686)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치과 Dental Clinic
Asia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공인회계사 CPA	세탁소 Dry Cleaners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셋방 ROOM RENT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태권도 TaeKwonDo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350/mo +DD \$100 + 1/3 Util. Available date: Immediately NON-Smoking and No-Pet. Phone : 505-352-5775 E-Mail: cyoh2003@yahoo. co.kr Contact:오영 권사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종교 Church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Kelly Liquors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NM (505-999- 8222)	의류 Clothes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한 의사 Acupuncture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Dr. Chang: (장상순) 301 San Pedro Suit# B, SE, ABQ (505-710-7504)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부동산 Realtors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Dr.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화랑 Gallery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회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사진관 Photo</p>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카페/ 선물 Cafe/Gift</p>	<p>편집후기</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p>건강식품 Health Food</p> <p>인성내츨: Los Alamos (505-662-9681)</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 527-0098)</p>	<p>이번호에는 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삽입 해서 한인회에게 가입 신청하시는 분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했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책임감 없는 선장과 직원들이 한국인이란 사실이 부끄러워 집니다. 미국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는 과연 부끄럽지 않은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가 되물게 됩니다. 아니, 자랑스럽지는 못할 망정, 부끄러운 한국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p>
<p>중재서비스</p>	<p>종교 Church</p>	<p>병원 Clinic</p>	<p>광야의 소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부끄럽지 않은 한인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p>	<p>이번호에는 서혁상 집사님의 정원관리에 관한 글이 아름다운 꽃 사진과 함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영화소개, 서양화 소개의 새로운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서 제공하는 뉴스나 콘텐츠를 광야의 소리에 전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되어서 편집하는 일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잭슨 목련 기증 기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것 입니다.</p>
<p>단요가 Dahn Yoga</p>	<p>산타페 Santa Fe</p>	<p>종교 Church</p>	<p>이번호에는 광야의 소리에 올리고 있는 광고들도 재 개약이 이루어 지면서 디자인도 일부는 변경했습니다. 광야의 소리 출판 인쇄 비용에 상당 부분이 광고주의 기부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업소를 찾아 다니시면서 수고해 주신 신옥주 집사님께 그리고 비즈니스 광고를 내 주신 여러 광고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면서 광고를 통해 본지를 지원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본지의 이메일주소나 신옥주 집사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는 505-269-0691</p>	<p>이번호에는 광야의 소리에 올리고 있는 광고들도 재 개약이 이루어 지면서 디자인도 일부는 변경했습니다. 광야의 소리 출판 인쇄 비용에 상당 부분이 광고주의 기부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업소를 찾아 다니시면서 수고해 주신 신옥주 집사님께 그리고 비즈니스 광고를 내 주신 여러 광고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면서 광고를 통해 본지를 지원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본지의 이메일주소나 신옥주 집사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리오란초 Rio Rancho</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라스베가스 Las Vegas</p>	<p>이번호에는 광야의 소리에 올리고 있는 광고들도 재 개약이 이루어 지면서 디자인도 일부는 변경했습니다. 광야의 소리 출판 인쇄 비용에 상당 부분이 광고주의 기부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업소를 찾아 다니시면서 수고해 주신 신옥주 집사님께 그리고 비즈니스 광고를 내 주신 여러 광고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면서 광고를 통해 본지를 지원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본지의 이메일주소나 신옥주 집사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Osaka (Traditional Japa- 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p>치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이번호에는 광야의 소리에 올리고 있는 광고들도 재 개약이 이루어 지면서 디자인도 일부는 변경했습니다. 광야의 소리 출판 인쇄 비용에 상당 부분이 광고주의 기부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업소를 찾아 다니시면서 수고해 주신 신옥주 집사님께 그리고 비즈니스 광고를 내 주신 여러 광고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면서 광고를 통해 본지를 지원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본지의 이메일주소나 신옥주 집사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리커스토어 Liquors</p>	<p>종교 Church</p>	<p>화밍톤 Farmington</p>	<p>2014년 4월 28일 편집위원을 대표해서 : 이경화</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p>	<p>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p>	<p>종교 Church</p>	<p>이번호에는 광야의 소리에 올리고 있는 광고들도 재 개약이 이루어 지면서 디자인도 일부는 변경했습니다. 광야의 소리 출판 인쇄 비용에 상당 부분이 광고주의 기부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업소를 찾아 다니시면서 수고해 주신 신옥주 집사님께 그리고 비즈니스 광고를 내 주신 여러 광고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면서 광고를 통해 본지를 지원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본지의 이메일주소나 신옥주 집사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클로비스 Clovis</p>	<p>라스크루세스 Las Cruces</p>	<p>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p>	<p>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4년 5/6월호 발행일 : 2014.4.28</p>
<p>종교 Church</p>	<p>공인회계사 ACC</p>	<p>가게 Store</p>	<p>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인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p>
<p>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p>	<p>Kelly Tax and Account- 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 ington, 87402 (505-327- 7167)</p>	<p>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p>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Sat 11:00am-9:3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292-8222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00-2:00 Mon -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A-1 한국식품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한식코너

Mon-Sat 10:00am-6: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1410 Wyoming Blvd. NE Albuq., NM 98112

Korean United Method Church In Albuquerque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www.kumcabq.com

Attach Stamp

우표를 붙인 후

반을 접어서 발송

To: